

섬진강 가동보 설치 결정에 ... 구례 ‘서시교 존치’ 힘 받나

서시교대책위 ‘존치’ vs 국토청 ‘철거후 인도교 설치’ 의견 엇갈려 갈등 가동보 설치되면 홍수위 낮아져 범람 위험 ↓ ...대책위, 1만명 서명운동

존치 여부 문제로 지역사회의 민원이었던 구례군 서시교 개축공사가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최근 섬진강 광평수중보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수위 및 강물 흐름을 조정하는 가동보 설치사업 추진 결정(광주일보 2025년 3월 27일자 14면 보도)에 따라 답보상태에 있던 개축 공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그간 지역민과 공사 시행 당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간 의견이 엇갈려 갈등을 일으켰던 개축 공사(광주일보 2024년 3월 4일자 14

면, 11일자 14면)에 대해 군민들로 구성된 서시교 대책위원회가 다시 존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섬진강에 가동보가 설치되면 지류인 서시천의 물 흐름에 변화가 오고 홍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지난 2020년 구례 대홍수 이후 홍수피해 방지책으로 추진 중인 서시교 개축 공사에 대해 익산청은 ‘철거’를, 군민은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익산청에 따르면 홍수 발생 때 다리 아래 수위가 높아져 교량이 범람하기 때문에 현재 다리를 철거

하고, 인도교만을 새로 설치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쪽 하단부로 1200m의 도로를 신설, 순천-완주 간 도로로 연결해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익산청이 홍수위를 과다하게 적용, 교량을 철거하려고 하는데 이는 잘못 계산한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현 교량을 철거한 뒤 기존의 위치에 현수교를 설치하면 문제가 해소된다”라는 주장이다. 즉 익산청의 계획대로라면 1일 평균 교통량인 6000여대의 차량이 지금보다 5~10분을 우회해야 하고 시간·경제적으로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연결 도로인 산업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사고의 위험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지난 31일 서시교 존치를 주장하는 대책위는 “섬진강 광평 수중보의 가동보 전환은 오래전부터 관계 당국에 요구해왔으며 이제라도 가동보를 설치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가동보 설치 후 물의 흐름이 크게 변할 것이며, 익산청이 주장하는 2m의 여유고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공학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수중보가 서시천과 섬진강 분류가 만나는 지점 바로 아래에 설치돼 있어 섬진강 물의 유속을 느리게 함으로써 그 영향이 지류인 서시천까지 미쳐 홍수위를 높이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익산청 관계자는 “가동보가 섬진강 분류에 설치되기 때문에 지류인 서시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지난 3월 28일 모임을 하고 오는 4월 7일부터 서시교 존치를 위한 군민 1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서시교는 섬진강의 지류인 서시천을 동서로 가로질러 설치된 길이 150m 4차선 교량으로 구례군 구례읍과 마산면·토지면·간전면 등 3개면과 광양시 경남 하동군을 이어주는 구례군의 대동맥으로 하루 평균 60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1년간 서시교 주변과 다리 위 인도에서 매일 서시교 철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취약층 주택 보수 ‘복지기동대’가 갑니다

곡성 죽곡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5가구 주거 환경 개선 활동



곡성군 죽곡면의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이하 복지기동대)’가 최근 주거취약계층 대상 생활불편개선활동을 펼쳤다. **【사진】** 지난 24~25일 이틀간 진행된 이번 개보수 작업은 복지기동대원 및 죽곡면 직원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총 5가구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했다. 복지기동대원들은 노후된 창틀을 깨끗하고 튼튼한 창틀로 교체하고, 고장난 보일러도 교체하여 단열 성능을 개선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계단 핸드레일을 설치해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강봉 복지기동대장은 “흘로 생활하는 어르신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 그리고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달려가겠다”라고 말했다. 죽곡면 복지담당자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살피며 살기 좋은 죽곡면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곡성=서승원 기자 swseo@

순천시, 두 달간 관광택시 반값 할인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순천 방문 타지역 관광객에 제공

순천시가 이달부터 5월까지 봄맞이 관광객을 위한 순천 관광택시 ‘봄맞이 반값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총 이용요금의 50%가 할인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할인 혜택은 순천을 방문하는 관외 관광객에게 제공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은 전화(061-749-2800) 또는 순천시 바로예약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순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봄의 순천은 따뜻한 날씨와 만개한 꽃들로 가득차 있어 여행하기 최적의 시기이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봄이면 튼リップ, 벚꽃, 철쭉 등 다양한 봄꽃

들이 만개해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며, 사진 촬영과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로 꼽힌다. 또한, ‘동천&서천 벚꽃길’의 분홍빛 벚꽃 터널에서 여유롭게 산책하며 도심 속 봄의 낭만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다. 벚꽃이 떨어질 즈음에는 ‘선암사’에 겹벚꽃이 만개해 사찰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어우러져 특별한 풍경을 선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봄맞이 순천 관광택시 반값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순천을 방문하고, 아름다운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순천의 다채로운 봄 풍경을 경험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경비 받고 ‘남도에서 한 달 여행’ 어때요?

광양시, 7박 8일 체류 여행 가능자에 1일 최대 10만원

광양시가 전라남도 장기체류 여행 프로젝트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현지인처럼 생활하며 여행하는 체류형 관광 유도로 로컬리안 여행을 선도하고 광양관광 브랜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모집대상은 전남·광주 거주자를 제외한 만 18세 이상 광양 7박 8일 체류 여행 가능자로 광양여행 홍보가 가능한 SNS 능통자여야 한다. 모집규모는 1~2인으로 구성된 총 8팀, 16명 이내로 7박 8일 여행 기간 동안 숙박비, 식비, 체험활동비 등을 1일 최대 10만원 지원한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를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담당자 이메일(hwa16@korea.kr)로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여행작가, 유튜버, 파워블로거 등 인플루언서를 우대 선정하고 여행후기, 광양 숨은 명소 추천 등 필수 및 선택 과제를 부여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만족도조사를 통해 관광지 불편 및 개선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강화해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김미란 광양시 관광과장은 “천혜의 자연과 풍부한 먹거리를 가진 광양에서 현지인처럼 살아보고 광양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릴 파급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관광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고 전파시켜 광양관광 발전 촉매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GS칼텍스, 여수 저소득 가구 인재 양성 20년

중고생 야간교실 등 총 15억 지원
올 매칭그랜트 통해 5천만원 전달

GS칼텍스와 GS칼텍스노동조합이 20년째 여수 지역 저소득 가정 중고생의 야간 학습교실을 지원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GS칼텍스 노사는 지난달 28일 여수교육지원청에서 ‘2025년 여수교육지원청 맞춤형 학습교실 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지역 청소년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도현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대환 여수구봉중학교장, 신은호 여수중학교장, 박만순 삼일중학교장, 허상배 여남중고등학교장, 정철섭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장대익 GS칼텍스 노동조합위원장, 김기웅 GS칼텍스 SHE/대외협력실장, 맞춤형학습교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여수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맞춤형 학습교실은 여수교육지원청과 GS칼텍스가 함께하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2006년부터 지금까지 20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면서 “이를 통해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야간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지역 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습여건을 조성해주고



GS칼텍스 노사가 지난달 28일 여수교육지원청에서 맞춤형 학습교실 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정철섭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백도현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장대익 GS칼텍스 노동조합위원장, 김기웅 GS칼텍스 SHE/대외협력실장.

있다”고 말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지원금은 GS칼텍스 노동조합과 회사가 매칭그랜트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20년동안 노사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다는 변치않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여수지역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지역사회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생들

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S칼텍스 노사는 2006년부터 총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맞춤형 학습교실 운영 외에도, 여수YMCA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식비 지원 등 여수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성장 지원하는 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군, 봄철 산불 예방 비상근무체제 돌입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지속
청명·한식 앞 입산 통제·예방 활동

보성군이 지난 28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지속에 따라 영상회의를 열고 전 직원 비상근무 체제 돌입 등 산불 대응 강화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서형민 부군수 주재로 진행됐으며, 산림산업과장 등 관련 부서장과 12개 읍면장이 참석해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부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군은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 조치를 강화했다. 특히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성묘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은 읍면 이장단협의회를 긴급 소집해 입산 통제를 강화하고, 마을 방송을 매시간 실시 하도록 했다. 현재 군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본청 실과소 직원의 3분의 1 이상을 주중·주말 관계없이 읍면 마을에 투입해 계도 및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성군은 28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지속에 따라 영상회의를 열고 산불 대응 강화에 나섰다.

산림산업과와 각 읍면은 전 직원의 절반 이상이 오후 8시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태다. 보성군 관계자는 “한순간의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 군민이 함께 산불 예방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어르신들 건강 걷기하고 상품권 받고

곡성군, 치매 극복 걷기 행사...오늘부터 20일간 온라인 챌린지

지역 주민들의 치매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곡성군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가 오늘부터 20일간 온라인 챌린지 형태로 열린다. 곡성군 치매안심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치매 환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에게 걷기를 장려함으로써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 극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특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워크온’을 다운로드한 뒤, ‘곡성군치매안심센터’ 커뮤니티에 가입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 목표 걸음 수는 20일간 10만 보로, 하루 최대 6000보까지 인정된다. 이는 무리한 운동을 방지하면서도 지속적인 걷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기한 내 목표를 달

성한 참가자 중 1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모바일 곡성심정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한다. 지난 2024년 진행된 행사에는 493명이 참여해 그 중 282명이 목표를 달성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는 결과로 올해도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곡성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걷기 행사가 지역 주민들에게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